



## [지속가능] 알라푸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63% 감축 목표

### - 에너지 친환경화,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 등 탄소배출량 저감 나서



유럽 최대 유가공조합인 알라푸드가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3%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당초 해당 조합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30%로 설정한 바 있으나,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재설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운영 중인 모든 화석연료 기반 집유차량과 유통 트럭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유제품 생산을 위한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며 지속가능성 향상은 물론 디지털화, 새로운 생산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소속 농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해당 조합은 낙농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주도하고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4%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agriland.ie, 1월 11일자 >

## [시장동향] 인도, 향후 10년간 유제품 수출 확대 전망

### - 주요 원유생산국의 생산량 감소로 인도 수출 기회 확대될 것



향후 10년간 인도의 유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인도의 Wazir Advisors 컨설팅기업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제품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원유생산국인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 인도의 유제품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인도의 원유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향후 10년간 원유 생산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 유제품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최대 유제품 시장은 EU로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향후 10년동안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 출처 : krishijagran.com, 1월 11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